

인 사 말

먼저,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이 자리를 마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4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지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모시는 일이면서도, 우리의 삶과 밀접한 지역공동체를 향상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거는 국민의 대화합을 이루고 민주사회에서 시민의식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에 다시 투영된다는 것을 알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거를 맞이하는 이때, 종교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정신문화는 사회를 정화하고 국민의 지혜로운 선택을 도울 것이며,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금번 선거가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과 상호 비방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올바른 정책이 넘쳐,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화합을 주는 선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